

탄소산업 1번지 도약 '전주형 일자리' 힘찬 출발

시, 탄소 관련 노·사·민·정·정부 관계자와 '전북 전주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개최

'미래 신소재'로 불리는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주형 일자리'가 힘찬 시동을 걸었다.

전주시는 27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 이진중 효성첨단소재(주) 대표, 신용만 효성첨단소재(주) 근로자 대표, 김광수 (주)테크카본 대표, 황승국 (주)KGF 대표 등 노·사·민·정 대표 22명이 참여하는 '전북 전주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지역 국회의원, 경제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해 전북전주형 일자리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탄생한 전북 전주형 일자리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노사상생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3대 핵심 상생요소로 정하고, 노사민정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고 탄소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효성첨단소재(주)와 (주)테크카본 및 (주)KGF, 협력기관, 연구기관 등과 연계해 탄소산업을 지탱할 앵커기업을 육성하고, 신기술 확보와 연관기업 집적화, 청년인재 양성 및 기업매칭으로 전주의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청년층이 선호하는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하게 된다.

상생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공고히 하고, △선진임금체제 도입 △노동관련 법령 준수 △노



27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전북 전주형 탄소생태계 상생일자리 협약식에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 김동원 전북대 총장을 비롯한 이진중 효성첨단소재(주) 대표, 신용만 효성첨단소재(주) 근로자 대표, 김광수 (주)테크카본 대표, 황승국 (주)KGF 대표 등 노사민정 대표 22명이 참여하여 협약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또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 안경덕 고용부 장관,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이 전주형 일자리의 새로운 출발을 경축했다.

사협의회 설치·운영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투자확대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 우선채용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노력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등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민간영역의 경우 공동 R&D 구축과 인력양성 및 기술협력력을 통해 탄소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기업을 유치 또는 육성함으로써 탄소생태계를 조성하고, 행정·재정적 지원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해 힘을 계획한다.

시는 향후 전주형 일자리가 본격 추진되면 탄소산업을 비롯한 연관 산업도 함께 성장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신산업으로의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은 지역 산업구조 혁신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의 의지를 담아 '전주, 더 높은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전북 전주형 일자리에 대한 경과보고 및 소개영상 상영에 이어 주요내빈 축사, 노사민정 소감발표, 상생협약 체결, 상생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염원하는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완성도 높은 상생협력 협약안을 도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노사와 시민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지역상생, 노사상생,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실현시키고 전주를 '대한민국 탄소산업 1번지'로 굳건히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향후 3년간 총 1375억원이 투자되는 전주형 일자리에 227개의 직접 일자리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정원 조성사업 추진

'생활밀착형 정원패키지 지원사업' 1차년도 사업 착수

고속도로와 기차길을 따라 전주를 찾는 여행객이 처음 맞이하는 전주역 앞 첫마중길과 전주월드컵경기장에 정원도시 전주를 상징하는 정원이 조성된다.

전주시는 올해 시민 누구나 쉽게 정원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을 중심으로 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지난해 산림청 공모에 선정된 '생활밀착형 정원패키지 지원사업' 1차년도 사업으로 올해 '정원도시 전주의 첫인상'을 열다를 테마로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실외정원 2곳과 실내정원 2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전주역 앞 첫마중길과 전주

월드컵경기장 앞 월드컵광장에는 5억 원씩 총 10억 원이 투입돼 실외정원이 조성된다. 또한 정원문화센터가 들어서는 중산공원과 국민연금공단에는 10억 원씩 총 20억 원이 투입돼 아름다운 실내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까지 내실 있는 정원을 설계한 후 오는 4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산림청 '생활밀착형 정원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국비 75억 원 등 총사업비 115억 원을 투입해 전주지역 주요 거점과 대표시설에 실외정원 7개소와 실내정원 8개소 등 총 15곳의 생활밀착형 정원을 구축하게 된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확산 대응 역량 집중

전주시보건소, 최소한 필수인력 제외 가능한 인력 역학 조사 채택치료자 관리 등에 투입·설 연휴 대비 비상대응 체제 구축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27일 신년 브리핑을 통해 올해 상반기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의한 확진자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등 관련 업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최소한의 필수인력을 제외한 소속 가능한 인력들을 △재택치료자 관리 △역학 조사 △이동 검체 △자가격리자 관리 등에 보강 투입하기로 했다. 또 최근 확진자 급증에 대해서는 재택치료 전담 TF를 통해 관리하는 한편, 확진자 및 접촉자 대상 역학조사와 재택관리자 물품 전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간 이동과 만남으로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설 연휴에 대비해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먼저 기존 운영해온 화산 선별진료소(화산체육관)·덕진 선별진료소(전주시 실내배드민턴장)를 이번 연휴기간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일 없이 가동기로 했다. 덕진 선별진료소의 경우 귀성객들에 대한 신속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휴기간 임시선별진료소를 증설하고, 선별진료소의 휴일 근무인력도 각각 25명(화산)과 18명(덕진)으로 연휴 이전 대비 각각 3~4명씩 보강한다. /김윤상 기자

이와 함께 주·야간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반을 가동한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와 가검물 채취·검사, 방역소독 등 방역업무가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주·야간 쉬지 않고 이뤄지게 된다.

동시에 시는 재택치료자 관리를 위한 재택치료 비상근무조를 편성, 확진자 증증도에 따른 재택치료 분류 및 건강·격리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대자이병원과 전주다솔아동병원, 남원의료원 등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3개소에 병상배정 및 이송 요청 등을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설 연휴 기간 운영되는 비상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후송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했으며, 연휴기간 응급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 등의 운영상황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오미크론 변이체에 의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이 코로나19 상황의 중대 고비"라며 "보건소는 확진자 관리 등 코로나19 대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도 오미크론 확산을 늦출 수 있도록 방역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정읍·고창·부안과 서울서 트래블마트 운영

전주시가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등 전북 서남권 지자체와 손잡고 수도권 여행객 유치에 나섰다.

전주시와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등 4개 지자체는 27일 서울 용산CGV에서 겨울철 꼭 봐야 할 관광지이자 다채로운 매력을 간직한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전북 서남권을 홍보하기 위해 수도권 국내·해외 전문 여행업체를 초청해 트래블 마트 형식의 박람회 개최했다.

'눈으로 보는' 트래블 마트에서 4개 지자체는 시·군별로 특별 제작한 홍보 영상을 상영했다. 또, 각 시·군 담당자들이 질의응답을 통해 수도권 여행업체에 시군 관광 정보를 설명했다.

전주시 등 4개 지자체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오는 4월부터 국내 전문 여행사와 함께 계절별 어울리는 각 지역의 대표 관광 콘텐츠와 결합한 숙박 여행 상품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모객에 나서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급수불량 지역에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추진

그동안 수돗물 사용이 어려웠던 전주시 농촌동과 신규개발지역 주택 등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된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장병호)는 올해 총 6억 원을 투입해 급수불량 지역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배수관 포설 공사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공사는 개발행위 등으로 신규 급수공급 수요가 발생한 지역과 배수관이 포설되어 있지만 보다 깨끗하고 안

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관을 새롭게 포설하거나 순환관망을 연결하는 것으로, 올해는 △팔복동 △반월동 △전미동 △평화동 △송천동 등 5개 지역에 총 1675m(구경 80~200mm)의 상수관이 포설될 예정이다.

시는 올 상반기 중 공사가 완료되면 총 71세대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